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1월 12일
제2035호

주 임 신 부 : 배하정 다니엘

보좌 신 부 : 양종욱 대건안드레아 신부

사 도 회 장 : 안민철 미카엘

연 령 회 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 무 실 : 703 968 3010

팩 스 : 703 968 3013

주 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 sthasang@gmail.co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1-22)



<그리스도의 세례>, 조반니 벨리니

주님 세례 축일 (다해)

제 1 독서 이사 42,1-4.6-7 <또는 이사 40,1-5.9-11> |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화답송 시편 29(28)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 2 독서 사도 10,34-38 <또는 티토 2,11-14; 3,4-7> |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루카 3,15-16.21-22 |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때에¹⁵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¹⁶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²¹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²²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복음 묵상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하느님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라면, 주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참하느님으로서, 죄로 말미암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더
다가오시어 내 편과 내 짝이 되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에 앞서 나자렛에서 목수 일을
하시며 서른 해 동안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평범한
우리 인간의 이웃으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서는 우리네 인간 삶의 곡절과 파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자비로써
주님께서서는 우리들 틈에 끼시어 ‘죄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주님께서서는 참사람으로서, 인간이 겪는 죄의
상처와 분열의 근본 원인을 밝히시고 없애시려 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타락의 바탕에는 늘 자신을
드러내고, 형제들을 내리누르는 교묘한 형태의 폭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길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손가락질받는 죄인들 틈에 끼시어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을 파견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모든 주도권을 건네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길, 여기에 인류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홀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며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이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성부와 성령의 화답이요 강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힘으로 당신의 남은 사명, 곧
공생활의 여정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김동희 모세 신부)

주님 세례 축일

주님의 세례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다른 ‘주님 공현’이라 할 만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공적으로
드러나신 특별한 날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부께 대한 순종과 낮추심으로 우리 역시 주님의 세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죄를 물로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으며,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포함하는
하느님의 은총”(전례사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세례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신비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 나아겠습니다.



바오로 말 콘텐츠



PILGRIMAGE

희년의 표징들 (1) 순례



희년은 여정을 시작하고 경계들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여행할 때, 우리의 물리적 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된다. 따라서 잘 준비하여 여행 경로를 짜고 목적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희년 순례는 본격적인 여정 전에 시작된다. 그 출발점은 순례를 하겠다는 결심이다. ‘순례’(pilgrimage)라는 용어의 어원은 이 말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고 세월이 지나도 그 의미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pilgrimage는 ‘들판을 가로질러’라는 뜻의 라틴어 ‘per ager’ 또는 ‘국경 횡단’을 의미하는 라틴어 ‘per eger’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두 가지 어원은 여행에 착수한다는 독특한 측면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여행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 가거라”(창세 12,1).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의 모험을 시작한다.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떠돌아다니는 아랍인”(신명 26,5)으로 기억된다. 예수님의 직무도 갈릴래아에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으로 볼 수 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루카 9,51).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제자들을 부르시어 이 길을 따르게 하셨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여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과 발견할 장소들이 있고, 이는 특정 상황들, 교리 교육, 거룩한 예식과 전례들로 이루어진다. 이 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여행 동반자들을 통하여 사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들과 새로운 관점을 접하며 풍요로워질 수 있다. 피조물을 관상하는 것도 여정의 일부다. 피조물에 대한 관상은 피조물 보호가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과 그분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보여 주는 데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교황 프란치스코, 2025년 회년을 위한 서한)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순례는 회심의 경험,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느님의 거룩함에 일치시키는 변모의 경험이다. 순례하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희년 순례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순례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람”

[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이 ‘희망의 순례자들’을 공식 표어로 하는 2025년 회년 순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가톨릭신자들이 희년을 맞아 로마에 온다면, 순례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5년 회년 공식 표어에 담긴 의미에 대해 “‘순례자’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걷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앞을 향해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순례자는 곧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황은 “순례자는 단지 걷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지닌 사람, 그 중에서도 확실한 목적지를 지닌 사람이어야 하고, 성스러운 목적지를 지니고 있을 때야 순례에 힘이 붙고 피곤한 여정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계속해 “주님의 말씀이 순례에 함께할 때 삶에 의미가 부여되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주님에게서 온 기쁨은 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운다”면서 “예수님은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세상의 희망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표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 동전 모으기 저금통 봉헌

- 대림 시기 동안 나누어 드린 저금통은 1월 12일(일)까지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단체장 회의

- 일시 : 1월 12일(일) 오전 11:30 (A-1,2)

3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1월 12일(일) 오전 11:30 (B-3,4)

4 복사단 모임

- 일시 : 1월 12일(일) 오후 12:30 성당 내

5 사도 임원 회의

- 일시 : 1월 17일(금) 오후 8시 (B-1,2)

6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30 (B-3,4)

7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30 (A-1,2,3,4)

8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9 2024년 교무금 납부 안내

- 2024년 교무금 납부액 영수증과 2025년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1월 3일(금)에 발송했습니다. 납부 금액이 다르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교우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직원분들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0 2025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행진)

- 일시 : 1월 24일(금) 오전 11시 미사, 오후 12시 성당 출발 (점심 제공,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까지 행진합니다. 따뜻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1월 19일까지(친교실, 사무실) 선착순 55명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703) 376-1372

11 주일학교 개강

- 일시 : 1월 12일(일) 오후 2시
-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발판이 됩니다. 신앙 교육은 주일학교 선생님들께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12 설 합동 위령 미사

- 1월 29일(수)은 설날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자매, 친척, 은인분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시 40분부터 연도를 바치고 가족별로 나오셔서 절을 드리겠습니다. 미사는 7시 30분에 봉헌됩니다.

13 첫영성체반 교리 개강

- 첫영성체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첫영성체 교리를 잘 마치고 성체를 모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1월 12일)까지 교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4 주임 신부님 사제 서품 25주년 은경축 미사 / 기도 봉헌

- 일시 : 1월 25일(토) 10시 30분 미사, 축하식 (이 날은 새벽 6시 미사가 없습니다.)
- 1월 25일(토)은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의 사제 서품 25주년 은경축 날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보대에 비치된 기도 약속 용지를 1월 22일(수)까지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5 교구 행사 - 마틴 루터 킹 기념 미사

- 일시 : 1월 19일(일) 오전 11:00 (Michael Burbidge 주교님 집전)
- 미사 후 작은 리셉션이 있습니다.



날씨에 관한 본당(알링턴 교구)지침

- ① 질병이나 약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 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일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 ② 우리 본당은 약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하상관 체육관 사용도 이에 따른다. (www.fcps.edu 참조)
- ③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약천후로 인해 미사 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 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④ 약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감사드립니다.

Giving Tree 행사로 \$17,780이 모금되어 고국과 필리핀, 파푸아뉴기니의 아동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지

셔틀버스 시간 안내

- ※ 앞으로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노인 아파트로 가는 셔틀버스가 **성당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01/12 이번 주	페어팩스 3-1,2구역
01/19 다음 주	페어팩스 3-3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월 5일 (주님 공헌 대축일)

봉헌금	\$ 8,712.00
교무금	\$ 10,320.00
교무금(신용카드)	\$ 5,060.00
감사 헌금	\$ 1,550.00
온라인 봉헌	\$ 3,040.00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 8,527.00
합계	\$ 37,20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5년 1월 16일(목) 오후 5:00 - 6:00
- 2025년 1월 17일(금) 저녁 8:00 - 9:00
- 2025년 1월 19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둘레특강** : 예수회 이근상 신부
"숨을 쉬어야겠습니다."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